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비유적, 성찰적, 반성적, 자조적
- 제재 : 자아 성찰
- 주제 : ① 젊은 날의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
 ② 젊은 날의 방황과 번민에 대한 성찰

#EBS

해제

이 작품은 미래의 시점을 가정하여 화자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시이다.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등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감탄형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젊은 날에 대한 탄식과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삶의 주체로서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주제

젊은 날에 대한 반성적 성찰

구성

- ▶ 1~2행: 현재를 기록한 메모를 보게 될 미래의 ‘나’
- ▶ 3~6행: 방황과 고뇌로 점철된 젊은 날에 대한 회상
- ▶ 7~11행: 질투뿐이었던 젊은 날의 모습
- ▶ 12~14행: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삶에 대한 반성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 인생을 관조할 만한 시점의 나이가 든 후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 힘을 잃은 기억의 좌표 ↳ 화자의 젊은 날의 고백과 방황의 기록이 담긴 종이

그 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 무언가를 생산하고 창조하기 위해 열정으로 가득한 젊은 날 심적 상태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 의미 없이 허황되게 살아 온 젊은 날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 열정은 있지만 행동하지 못함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 젊은 날의 화자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 젊은 시절을 자신의 뜻과 이상대로 살지 못했음을 반성.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 지금까지의 삶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산 삶이었음을 깨달음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 화자가 젊은 날에 품었던 꿈과 열정은 결국 질투에 불과했다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 분위기를 전환

↳ 현재의 기록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 타이머로부터의 인정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화자의 반성이 압축적으로 표현



작품의 특징

- 감탄형 어미를 사용하여 영탄적이고 애상적인 어조.
- 먼 미래의 시점을 상정하여 시상 전개.
- 화자는 자신의 젊은 날이 질투뿐이었다고 고백 함